



안녕하세요!

저는 이규숙 소화데레사 수녀입니다. 1남3녀 중 셋째입니다. 첫째가 오빠, 둘째는 언니, 그리고 저와 여동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3년 정도하고 수녀원에 입회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대교구에 속해있던 구리천주교회에서 교리교사와 레지오 활동을 통해 청년회 활동을 활발히 하였습니다. 어느날 본당에서 청년 피정을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씨튼 피정의 집'으로 가게 되면서 우리 사랑의 씨튼 수녀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3년 가까이 성소 피정을 다니면서 수녀님들의 소박한 삶과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이끌림이 있었고 막연하게 어릴 때의 꿈이 나도 수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의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오세향 수녀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권유해주셔서 함께 분별하며 입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녀

원에 입회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재봉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원기 때 양성 담당 수녀님께서 재봉틀을 해본 사람 있냐고 물어보셨을 때 아무도 없으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것을 본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셔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착복 준비 때 모자 만드는 작업에 배정되어 선배 수녀님들에게 잠깐 설명을 들으며 배워 시작한 재봉을 지금까지 하면서 2016년 ~2020년까지 본원에서 재봉방 사도직을 하였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어 많이 부족하지만 공동체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며 감사로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본당에서의 경험과 사회복지 기관에서의 경험, 내부 사도직에서의 경험 등 다양한 경험은 저의 삶에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저의 수도 여정의 삶을 돌아보면 아주 나약하고 힘없는 저를 통해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 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현재는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성모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각장애학교에서의 사도직이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실수를 할까봐 걱정도 많이 했지만 순수하고 밝은 모습으로 내게 먼저 다가와준 학생들 덕분에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상 시력으로 바라보지만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학생들보다 내가 더 무감각해서 모르는 것도 많다는 것을 배우며 더 겸손하게 생활해야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글을 쓰면서 입회를 결정하게 했던 말씀을 떠올려봅니다. 껍여진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이사42,3)주님의 자비에 의탁하면서 이 길을 걸어 왔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새삼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 자비를 청하고 감사하며 매일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주는 찬미 받으소서!!!





Hello! I'm Sr. Lee Kyu-Suk, and my baptismal name is Little Flower Teresa. I'm the third among four siblings, one older brother and sister, a younger sister and myself. After graduating high school, I worked at a company for three years and then entered the community. While a career woman, I was very active in teaching catechism and with Legion of Mary for the youth at Gu-ri Catholic Church in Seoul Diocese. One day our parish went on a retreat for young adults to the Seton Retreat House located in Seoul. My relationship with our sisters began from that moment. I participated in vocation retreats for around three years and was attracted by the sisters' joyful and straightforward life. Since I had only a vague dream of becoming a Catholic sister

growing up, I decided to enter the community after discernment when Sr. Oh, Sae-Hyang encouraged me.

I experienced many things for the first time through religious life, and sewing is one of them. When I was an affiliate, the director was looking for someone with experience in sewing. There was no one among us. Then she asked if anyone had ever watched mother sew? I raised my hand. After one year, I was assigned to sewing the cap for our religious habits as taught by senior sisters. Since then, I have been engaged in sewing and ministered at the provincial house as the sewing director from 2016 to 2020. Though I hadn't mastered it at school, I responded to the call and served with joy, and thanked God for giving me such talent so that I could respond to the community's needs.



My experience at the parish, social welfare ministry, and interior ministry became other nourishing parts for my life. Reflecting on my religious life reminds me that God is working what He wants to do through me, weak and feeble. Now, I am working as a volunteer at St. Mary School for the visually impaired in Choongju. In the beginning, I was nervous because this was my first time for this kind of work; however, now I adjusted myself to my ministry and I'm doing well because the students were friendly to me.

I am also trying to put myself in others' positions to understand the person more. Spending time with the students here I find that, because of my senselessness, there are many things I have to learn from them even though I can see with clear vision. I must humble myself.

While writing this article, I recalled the words of Scripture that made me decide on my religious vocation: "A bruised reed he will not break and a burning bush he will not quench." (Isaiah 42:3) Once again, I remember how good it was to have walked this path, trusting in God's mercy. I will keep making efforts to respond to the call, faithfully remembering His Words and constantly asking His mercy. Praised be God forever!

